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November 3, 2016 Vol. 552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7차 정기총회가 1일 세계성경장로교회에서 열려 신임회장 최순길 목사를 선출했다.

연합하며 희망 주는 교협될 것

남가주교협 제47차 정기총회
회장 최순길 목사
수석부회장 김종용 목사 선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 제47차 정기총회가 1일 오전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에서 열려 신임회장 최순길 목사(엘에이임마누엘교회 담임)와 수석부회장 김종용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 담임)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회장 민승기 목사), OC한인여성목사회(회장 이선자 목사) 임원들도 함께했다.

신임회장 최순길 목사.

강신권 목사(남가주교협 제46대 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선자 목사와 최경일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총무) 대표기도, 김소연 목사가 이끄는 율동찬양, 민승기 목사 설교, 엄규서 목사와 이호우 목사(OC교협수석부회장) 축사, 최학량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민승기 목사는 '행복한 공동체'(벧전2:19) 주제 말씀 선포를 통해 "행복한 공동체는 사랑이 넘칠 때 가능하다. 지난 남가주교협이란 공동체의 고난은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며 "결국 승리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전진하라"고 전했다.

엄규서 목사는 축사를 통해 "어느 때 보다 마음으로 섬기고 용서하는 이해와 관용이 필요한 때이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포용할 수 있는 하나됨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남가주교협이 되어달라"고 전했다.

이호우 목사는 "절대로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달라"며 축사를 대신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北억류 임현수 목사, 2개월째 입원"

캐나다 정부, 석방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아

2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임현수 목사(캐나다 토론토큰빛교회)의 건강이 악화돼 2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외무부는 임현수 목사가 지난 8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임 목사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임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RFA는 임 목사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전방위적 석방 노력과 함께, 가족들과 캐나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북 지원사업을 하다 중국 당국에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2년간 중국에 억류돼 있던 캐나다인 케빈 개럿 씨는 지난 9월 저스틴 튀르도 캐나다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전격 석방됐고, 이란에 억류됐던 캐나다 국적 후드파 교수의 석방을 위해서도 총리가 직접 나서면서 석방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정부는 독재국가인 북한과의 협상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현재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캐나다 외무부는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임현수 목사.

임 목사가 담임하던 캐나다 토론토큰빛교회는 지난 2월 캐나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도모임을 가졌고, 억류 초기 임 목사의 구명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이다. 이에 RFA는 "현재 캐나다 한인사회에서는 임 목사 구출을 위해 더 적극적인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 역시 임 목사 구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주변 동맹국들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임 목사 억류 문제가 있어 캐나다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캐나다 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임 목사의 북한 억류로 인해, 캐나다가 탈북민들을 공개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에 계속]

복음에 입각한 한국교회 통일신학 정립이 중요한 과제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심포지엄…한국교회의 통일 관심 촉구

10월 31일 낮 프레스센터에서는 종교개혁499주년을 맞아 다가올 종교개혁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변화와 갱신, 그리고 미래'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주도홍 박사(백석대 교수·사진)는 "종교개혁500주년과 한국교회 갱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구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500주년, 신학과 교회에서만 국한된 기념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500년 전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나야만 했다면, 이제 한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박사는 "500주년을 맞는 독일교회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은 ▷종교개혁을 세계사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점 ▷공공신학의 추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에 계속]

美 대마초 오락용 사용 합법화?

11월 8일에 실시되는 대선…5개주에서 실시되는 주민투표

차기 대통령을 뽑는 11월 8일, 5개주에서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향후 미국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의 길을 여는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메인, 메사추세츠 등 5개 주에서는 이날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오레곤, 알라스카, 워싱턴주, 워싱턴 DC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었는데 11월 8일 5개주에서도 합법화될 경우 미국 전역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카센,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사랑의빛선교교회가 가을부흥회를 개최했다.

최병락 목사.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9회 정기연주회를 위한 설명회가 10월 31일 열렸다.

사랑의빛선교교회…가을부흥회 개최

최병락 목사 초청 '일어나라' 주제로 열려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가 2016년 가을부흥회를 개최했다. 10월 28일~10월 30일까지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회에서 강사 최병락 목사(달라스 세미한교회 담임)는 자신의 목회 간증과 함께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헌신을 촉구했다.

부흥회 첫날 그는 '한 사람(행 21:15~16)'이란 설교에서 '오랜 제자이자 구브로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된 나손의 삶을 조명했다. 최 목사는 나손에 대해 변함없는 제자의 삶을 살며 겸손히 헌신했던 사람이라 설명하면서 사랑의빛선교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손 같은 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을 던졌다.

이번 부흥회에서 최 목사는 '세 가지 은혜', '부족함의 능력', '한 달란트의 기적' 등의 말씀을 증거했다.

김준형 기자

글로벌선교연구원장 김만태 박사 세미나

'상황화와 문화 변혁으로서의 선교' 세미나가 풀러신학교에서 열렸다.

풀러신학교에서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세미나가 열렸다. 10월 24일 '상황화와 문화 변혁으로서의 선교(Mission as Contextualization and Culture Transformation)'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 학교 현대문화와 리더십 분야 교수이자 글로벌선교연구원(GCMI) 원장인 김만태 박사가 강의했다.

김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며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최고 규범이지만 선교 사역 현장에서는 문화를 고려한 상황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서 김 박사는 한국 개신교회 교세 감소에 대해서도 문화 변혁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는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의 충성된 일꾼으로 훈련해 성장을 이루었을지는 몰라도 교회 밖에서의 삶, 사회 속에서의 성경적 가치관 실천을 구현하지 못해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젠 교회가 성장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문화 구현을 추구해야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가 원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선교연구원은 지역교회의 선교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며 현장 선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 소개하고 있다. 5명의 선임 연구원과 7명의 선교사 현장 연구원이 여러 한인교회들과 동역하고 있다.

한인교회들을 직접 방문하여 MT(Mission Together) 워샵을 열고 효과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또 선교사들을 직접 방문해 MI(Mission Impact) 세미나를 열고 선교 현장의 이슈와 전략을 소개한다.

*문의: 213-531-7215

*웹사이트: www.gcmiworld.weebly.com

김준형 기자

새언약기독교학교 선교사·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토너먼트 개최

새언약기독교학교(교장 제이슨 송)이 10월 29일 웨스트리지 골프장에서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5번째를 맡는 골프토너먼트는 총 14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고, 4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형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4만천여 불의 기금이 모금됐다.

골프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한 한스 김 학부형은 "올해도 학부형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해주셔서 귀한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면서 "행사의 좋은 취지가 알려지면서 해마다 참여해주시는 귀한 섬김과 봉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제소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요"

제9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박재웅 목사, 지휘 이데이빗 목사) 제9회 정기연주회 개최와 관련된 설명회가 10월 31일 LA한인타운 로텍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재웅 단장은 "이번 연주회는 비록 9번째 열리는 연주회이지만 찬양단 창립 10주년을 바라보는 의미가 크다"며 "오늘날까지 찬양단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연주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은 목사장로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찬양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찬양단으로 목회자 및 장로 부부 모두에게 항상 활짝 열려 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연주회에는 죠이플남성선교중창단, KAMA 보이즈 앤 걸즈 합창단,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소프라노 줄리 안 등이 함께 참여하며 수익금음 교도소사역 단체에게 전달된다.

*일시: 11월 13일(주일) 오후 6시

*장소: 윌셔연합감리교회

*주소: 4350 Wilshire Blvd., LA, CA 90010

*문의: 213-550-8778

이영인 기자

연합하며 희망 주는 교협될 것

[1면으로부터 계속]최학량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최대준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2부 정기총회는 70명의 회원 점명 후 강신권 목사가 개회 선언과 함께 회순통과,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정관개정위원회보고(회칙 통과), 공천위원회보고가 끝난뒤 선거위원을 선임한 후, 남가주교협 제47대 회장으로 최순길 목사, 수석부회장으로 김종용 목사를 박수로 각각 선출했다.

남가주교협 제47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순길 목사는 한국방문 일정상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대신하며 "남가주교협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한다. 많은 지도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종용 목사는 "OC교협과 OC목사회, OC한인여성목사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등의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신임회장을 도와 희망을 주는 남가주 교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 임원교체, 안건토의, 기타토의를 거쳐 신임서기인 이동규 목사가 회의록 낭독 후에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제47차 남가주교협 정기총회를 마쳤다. 제47대 남가주교협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순길 목사 △수석부회장: 김종용 목사 △부회장: 최명상 목사, 김관진 목사, 조봉상 목사, 강우종 목사, 손태정 목사, 이정현 목사 △서기: 이동규 목사 △부서기: 허만진 목사 △총무: 최경일 목사 △부총무: 백선영 목사 △회계: 여호수아 지 목사

이인규 기자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SUPER AUTO DENT BODY INC & AUTOTECH
Super Autotech
수퍼 자동차 덴트 바디&오토텍
www.superautodent.com
자동차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보험, 토잉, 렌트카까지 원스탑 서비스! (24시간 대기)
Mercedes-Benz BMW LEXUS Audi PORSCHE HYUNDAI KIA Ford HONDA ACURA
어떤 정비라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오직 기술력과 참신한 서비스로만 승부하겠습니다!
유럽차 전문! 어려운 정비OK!
T.323.730.1530 영업시간 : 월~ 금 (AM 8:00~PM 5:00)
233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워싱턴 블루버드 + 그래머시 플레이스)
Washington Blvd
Arlington Ave
S Gramercy
S Western Ave
10 Freeway

남가주 코너스톤교회에는 몇 가지 비밀 아닌 비밀이 있다. 담임목사가 한때는 아주 유명한 대중가수였다는 사실, 최근에는 그가 전립선암으로 생사를 오고 갔다는 사실, 오는 건 막지 않지만 매일 큐티하고 보고서를 안 제출하면 정착이 불가능한 교회란 사실, 교회의 모든 사역자를 교회 내에서 충당(?)한다는 사실. 이종용 담임목사 ☞

편안한 쉼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한식, 양식, 중식과 함께 둘째날 점심때는 떡볶이, 순대, 튀김, 국수, 붕어빵 등 분식이 교회에 등장했다.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요? 코너스톤에서는…

제14기 커넥션 행사에 선교사 · 목회자 15가정 참석

코너스톤교회의 비밀스러운 사역 중 하나인 커넥션이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13일~19일까지 열렸다. 바로 전 세계의 선교사·목회자 가운데 '3RE'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 섬기는 일이다. 3RE는 Refresh, Recharge, Revival이다.

코너스톤교회는 선교사나 목회자 가운데 건강하고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지만 쉼이 필요한 사람,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 쉬고 재충전하고 나면 더욱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1년 동안 수소문한다. 직접 찾아서 연락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 추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참석자들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후보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14회째 매번 15가정, 30명의 선교사·목회자 부부가 코너스톤교회를 방문했다.

코너스톤교회는 23년 전 창립됐다. 보통은 '교회 창립 기념 감사예배'라는 것을 매년 드리지만, 이 교회는 '첫 예배 감사예배'라고 부른다. 아무튼 처음 몇 년간은 감사예배를 드렸지만, 이것도 해가 더할수록 새로움이 떨어지고 형식적이 되어갔다. 그러던 중 타 지역으로 집회를 다녀온 이종용 담임목사가 그 지역에서 정말 쉼과 재충전이 필요한 목회자들을 발견하면서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비전을 세웠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창립의 감사를 드리기로 했다.

무조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섬긴다. LA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LA발 비행기를 타기까지 모든 비용은 교회가 부담한다. 그렇게 푹 쉬면서 코너스톤교회의 목회를 겉에서부터 속까지 볼 수 있게 해 준다. 코너스톤 성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간증도 듣는다.

이 과정에서 코너스톤교회는 선교사·목회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두 가지 고민에 매우 쉽게 답해 준다. 첫째, '교회를 잘하고 싶은데 일꾼이 없어요'와 둘째, '교인들의 성숙이 안 이뤄져요'다. 성도들은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간증하고 또 큐티를 통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간증한다. 일단 이 간증만 듣고 나도 절반은 해결된다.

세미나에서는 이종용 목사가 짧게 몇 마디만 한다. 듣기보다는 직접 보란 식이다.

코너스톤교회에서 열린 제14기 커넥션 행사를 통해 15가정의 선교사 · 목회자 부부가 쉼을 얻고 비전을 찾아 사역지로 돌아갔다.

이종용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1~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각각 은사를 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붙들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교역자, 평신도 설교자, 찬양인도자, 반주자, 방송 사역자, 디자이너까지 모두 성도 중에서 찾아내게 하셨다. 지금 큰 교회니까 쉽다고 할지 모르지만 개척 초기부터 지켜온 신념이다.

"사람이 없다고요? 반드시 '이미' 보내 주셨을 겁니다. 눈에 안 보이면 가르쳐서 쓰면 됩니다"

심지어 차기 담임목사도 그렇다. 이종용 목사는 "이제 곧 저는 은퇴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끄심만 있다면 우리 교회 홍성표 전도사를 차기 담임목사로 세우고 싶다"고 했다. 홍 전도사는 중학생 시절부터 이 교회를 다닌 코너스톤인이다. 대학생 시절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진학해 현재 공부 중이며 코너스톤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코너스톤의 DNA를 익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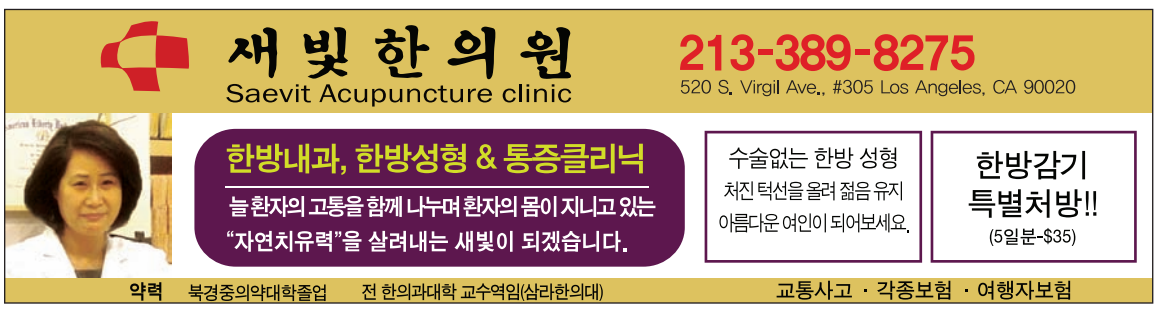
이 목사는 성도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큐티라고 본다. 온 교인이 그날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모두 올라간다. 산속에서 그동안 듣고 본 것을 곱씹으며 자신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찾는 시간이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 코너스톤교회로 돌아와 파송의 예배를 드리고 각자 사역지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14기 참석자 중 한 명인 최철우 목사(밴쿠버기둥교회 담임)는 "보통 세미나에서는 배우러 갔다가 실망하고 오는데 이번에는 쉬러 갔다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먹이듯, 이종용 목사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있었다. 이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제 목회에 맡겨 주신 양을 먹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주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문의: 310-530-4040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

김준형 기자



뉴욕교협 제42회 정기총회가 10월 31일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뉴욕교협 42회 정기총회…신임회장 김홍석 목사 선출

부회장 이만호 목사…평신도 부회장 이상호 안수집사 선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42회기 정기총회가 10월 31일 오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 신임 회장에 직전 부회장이었던 김홍석 목사(늘기쁜교회 담임), 목사 부회장에 단독후보로 나선 이만호 목사(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가 각각 선출됐다.

회장 선거는 직전 부회장인 김홍석 목사가 단독 입후보, 관례대로 총대 전체의 박수로 추대됐다.

부회장 선거는 다른 후보였던 김전 목사(뉴욕대한교회 담임)가 총회 이틀 전 돌연 후보를 사퇴, 이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투표 결과 이만호 목사가 총 161표 중 찬성 92표, 반대 67표. 무효 2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평신도 부회장은 현재 이사장인 이상호 안수집사(뉴욕성결교회)가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다.

감사는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담임), 김기호 목사(뉴욕주양장로교회 덤암), 김주열 장로(목양장로교회) 각각 당선됐다.

[뉴욕기독일보]

제32회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정기총회가 10월 25일 워싱턴주 훼더럴웨이 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재미고신과 고려총회 미주노회 통합

재미고신 수도노회로 소속…하나님 뜻 구하며 세계 선교에 이바지 할 것

지난해 예장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약 40년 만에 역사적 교단 통합을 이룬 데 이어 재미고신과 고려총회 미주노회도 통합에 합의했다.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재미고신, KOSIN USA)는 10월 25일 워싱턴 주 훼더럴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최병걸 목사)에서 열린 제32회 정기 총회에서 고려총회 미주노회장인 한태일 목사와 서기 류광현 목사가 자리한 가운데 통합을 선언했다.

고려총회 미주노회는 수도노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미고신의 노회로 소속됐다. 고신 측 총대들은 통합이 선언되자 뜨거운 박수를 보냈으며, 총회장 윤대식 목사와 한태일 목사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으며 하나됨을 축하했다.

한국에서 사절단으로 참석한 배광호 고신총회장은 "해외에 널리 퍼져있는 고신과 고려파 교회와 선교사들이 고신의 개혁주의 정체성과 순결의 신앙을 바탕으로 영광스러운 통합을 함으로써,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며 "물질문명과 세속화로 얼룩지는 세상 가운데 고신의 신학과 신앙으로 미국을 일으켜 세우는 재미고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미고신 윤대식 총회장은 "한국 고신과 고려의 통합 이후 1년 가량 고려총회 미주노회와 만나 대화를 나누며 통합을 준비해 왔다"며 "형제 교단이 하나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자"고 밝혔다.

한태일 목사는 "주의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고 하나됨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회원들도 재미고신과 함께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며 "재미고신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도노회는 현재 미국 동부 버지니아와 아틀란타 지역에 8개 교회 10명의 목회자와 800여 명의 성도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재미고신 원로인 최학량 목사는 통합을 감사하며 총대들을 대표해 기도했다.

최 목사는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과 한 교단 안에서 함께 주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고신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재미고신이 미국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시애틀 김브라이언 기자]

조동혁 박사 칼럼 7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동맥경화증

100세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의 양상도 점차 바뀌고 있다. 몇 십년전만 하더라도 감염과 통증이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증상이 없는 만성 성인병들이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메스컴에서는 이러한 무증상 성인병들을 일컫어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병 중 하나가 바로 "동맥경화증"이다.

동맥경화증은 말 그대로 혈관인 동맥이 경화, 즉 단단해진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그렇게 단단해지면서 좁아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졸증이라하고, 그 좁아진 혈관이 심장의 혈관이 되면 심근경색증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노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도 LDL의 증가가 있으면 동맥경화증이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2004년 Yusef 교수 연구팀이 심근경색증과 그 원인인자들에 대해서 조사한 발표가 있었다. 그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의 증가는 3.3배, 당뇨는 2.4배, 고혈압은 1.9배, 흡연은 2.9배, 복부비만은 1.6배, 그리고 사회정신적인 문제들은 2.7배의 증가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당뇨와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말기 신부전, 즉 콩팥이 부전증이 있을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심장의 문제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게 된다. 그 통계에 의하면 25세의 말기신부전 환자는 85세 일반 노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과 같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사망률로 비교해 본다면, 말기신부전환자는 500배의 사망률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모든 병들을 통털어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장내과의사들은 다른 의사들보다 혈관과 동맥경화증의 문제를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는 것이다.

반면 심근경색증을 감소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들은 야채와 과일의 섭취가 30% 감소, 주기적인 운동이 14% 감소시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들은 대부분 성인병인 만성질환들이다.

동맥경화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인병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와,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한 치료가 필수다.

따라서 이런 병들의 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꾸준한 환자의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환자는 자신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리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길 바란다.

오픈청지기재단 지원단체 모집

"접수마감 11월 30일(수)"

오픈청지기 재단에서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됐다. 지원금 신청서는 오픈청지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접수마감: 11월 30일(수)까지

*웹사이트: www.openstewardship.com

*문의 : 213-593-4885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수소수의 활성 산소 제거 과정

수소 활성 산소 ▶ 수소 활성 산소 ▶ H_2O

체내에 물과 함께 흡수된 수소가 분리되어 / 몸에 나쁜 활성산소와 결합이 되고 / 무해한 물로 바뀌어 소변이나 땀등으로 배출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키친아트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Pure & Good Hydrogen Generator with Water Purifier

구입 문의 Tel. 213)434-1170 PRO-Z USA, Inc. 621 S.Virgil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5

서머나교회와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8-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요한계시록2:8~11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교회는 에베소 교회 북쪽으로 약 2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에게해를 향하여 세워진 항구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밀레도, 그리고 서머나가 3대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진이 잘 일어나서 그로 인해 도시가 잿더미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소아시아를 침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곳을 먼저 침공하여 전술, 전략적 요새를 삼았기 때문에 상당히 환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많은 돈을 들여 서머나 항구도시를 튼튼한 도시로 재건했는데 그후 그곳 사람들은 황제를 신성시하는 폐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훗날 순교자가 생기게 되는 문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고 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몰약 성'입니다. 관목이라는 나무를 여러 조각을 내어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찧어서 나무의 수액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수액에서 추출해 낸 것이 몰약입니다. 이것은 방부처리를 하는 용도나 향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며 죽임을 당하시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교회는 '몰약 성'이란 이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2:1에서는 예수님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지상교회에 파송하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자(아포스틀로스)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과 그 목자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교회를 가꾸시고 이끌어가시며 그 교회의 사명따라 다양하게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서머나교회를 두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서머나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처럼 표현하신 것은 서머나교회에 순교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적인 기준에서 그 당시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가난했고 환란을 많이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영적 소망의 믿음이기 때문에 서머나교회는 영적으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서 상당히 부요한 교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자들이 자신들은 할례 받은 자들로 유대인이라 자칭하며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며 교회를 훼방하고 대적, 핍박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환란을 겪고 고문과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 환란을 붙이심으로 진짜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짓는 일을 하시는 것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십 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 일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또 한 가지는 다소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환란을 당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영적 성과를 기대하시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그 환란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하십니다. 죽음으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잘 믿었던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희생양으로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같이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같이 살리시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믿고 목숨까지 완전히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땐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했는데 이것은 서머나교회에만 일러주신 말씀이 아니고 세상 모든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악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며,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11~15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받고 지옥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행위록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8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했습니다.

즉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가는 일을 면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머나교회 교회학교에 치아파닉이라는 12살된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황제숭배 사상으로 인해 황제를 신성시하여 황제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제단에 절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는 절하지 않고 그냥 서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나게 하셨고 오늘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고 그 분을 섬겨야 할 입장입니다"며 당당히 말했고 이로 인해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는 "수령님, 제가 사자 굴에 들어가서 이 육신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수령님이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엄청난 형벌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고 말하며 사자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그 교회 지도자인 폴리갑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A.D 155년에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A.D 105년경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순교적 각오로 구령성과를 위한 사명에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두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폴리갑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 당당한 믿음으로 순교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남가주 순복음교회

교회설립 9주년 및 성전이전 감사예배

3111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진유철 목사

- 일시: 2016년 11월 6일 주일 오후4시
- 설교: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 축사: 이영훈 목사 (영상/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민승기 목사 (OC교협 회장)
  Young Kim (주하원의원)
- 권면: 배현성 목사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담임)

"초대의 글"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는 2007년 3월 오렌지카운티 싸이프레스에 개척 설립되어 9년간 맡겨주신 양무리와 지역사회를 섬기다가 이제 2016년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애너하임 지역으로 성전을 옮기게 하시고 또 다른 출발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가주순복음교회 목사 박재만 외 성도 일동 올림

www.socalfgc.com | TEL. (714)952-0191
3111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주일예배: (1부) 9시, (2부) 11시 / 금요성령집회 오후 8시 /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자격조건)

1. 담임목사 3년 혹은 부목사 5년이상 경력 있으신 분
2. 신 분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3. 기 타 : 한국어와 영어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2. 신앙 간증문 : 본인및 사모 가족소개, 성장과정과 신앙생활, 목회비전과 철학
3.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 또는 DVD 2부
4. 추천서 2부(추천인 밀봉 후 날인요망)
5. 제출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11월 5일(토)까지

(제출처)

LA HANMI CHURCH 청빙위원회
전화 : T(626)444-0058-9
주소 :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email: lahanmichurch1@gmail.com
www.lahanmi.com

나성한미교회

●김인수 교수의 한국 교회사

교회의 사회개혁 활동(III)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직시한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가 여성 차별이었다. 유교적 관습에 기인한 남녀 차별 관습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것으로 교회는 이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여성들은 소위 '삼종지도(三從之道)' 즉 여자는 일평생 세 남자에게 종속되는데,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출가한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종속된다는 유교의 전형적 여성 차별의 악습이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이란 아내를 내쫓는 일곱가지 구실로 불순구고(不順舅姑:시부모에게 불순종함), 무자(無子), 음행, 질투, 악질(惡疾), 구설(口舌), 도절(盜竊) 등을 말한다.

장로교 공의회가 여성의 인권에 관하여 결의한 다섯 가지 항목을 보면, "첫째는 남, 녀가 장성하기 전에 혼인하는 일이오, 둘째는 과부가 두 번 시집 가랴는 거슬 금하는 거시오, 셋째는 교중 신도가 밋지 아니하는 이와 혼인하는 거시오, 넷째는 혼인을 매즐 때에 몬져 돈을 받는 거시오, 다슷재는 부녀를 압제하는 일을 업시하자고 하는 일이라."했다. 감리교회에서도 1895년 선교사연회에서 일부다처주의를 정죄하고 첩을 가진 자는 교인 자격이 없으므로 교회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하였다.

유교 전통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여성을 차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습은 양반들이나 벼슬아치들이 소실, 즉 첩을 두는 일이었다.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 제도를 교회는 처음부터 엄격하게 금지했다. 소실을 정리하지 않은 자는 결코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데릴사위나 민며느리(씨받이) 제도도 금지했다.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첫째 조건을 여성 교육에 있다고 판단한 선교사들이 여성 교육 기관 설치에 치중하여, 감리교에서 먼저 이화학당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집안의 흥함과 나라의 부함과 백성의 강함이 젼국 녀인을 교육시키는데 달녀거늘…" 이란 말에서 보듯 여인들의 교육에 교회와 국가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강조했다.

황해도 평산 감바위교회에서는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쓸 것과 한 자리에서 식사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고한다. 교회 안에서 부인에게 하대하거나 반말을 하는 것을 금하고 존댓말을 쓰게 하는 것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교회가 여아들을 교육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다음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셔울 연동 녀학당에 학도가 지금 이십 명인데 그 학교 규칙인즉 비단 학문만 가라쳐셔 발신하게 하는 거시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공부와 힘으로 하는 공부를 다 하는데 음식 만드는 일과, 바느질하는 일과, 국문과, 국문습자와, 셩경을 날마다 외오는 공부와 풍유하는 공부와, 산슐과, 디리와, 력사와, 한문과, 한문습자와, 화학과, 간혹 체죠운동하는 공부인대 … 디리와 력사도 잘 알거니와 산슐에 통분까지 알고 한문은 거의 이쳔 자 가량이나 아는 거슬보니 우리 예수교 회중뿐만 유익한 거시 아니라 우리 나라에 크게 유익한 긔초가 될 터히나 이거시 쥬 하나님 압헤 감샤한 거시라. 만일 엇더한 교우던지 딸을 학교에 너호랴 하면 일 년에 당 오백 양식 드려노흘것 갓흐면 학교에셔 먹이고 입혀 잘 교육 식혀 주나니 원하시는 이가 잇거든 셔울 련동 또티 부인 앞으로 편지 하시압. 한국에 첫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는 한국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에서는 여성을 격리시키는 관습이 중국보다 더 엄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인도의 관습과 비슷하다.……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기독교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이 집에서 고된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즐거움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미 살펴 본 바 같이 네비어스 선교 정책에도 부녀자들과 소녀들에게 중점적으로 전도하라고 한 것도 여인들에게 선교의 초점을 맞추고 여인들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 선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 차별의 철폐는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으며, 서로 돕고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초 내한 선교사인 알렌 의사가 미국 본부에 보낸 첫 편지에서, "여자들은 아주 격리된 뒤쪽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이곳은 마치 감옥과 같이 격리되어 있는 곳이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저녁 9시까지는 거리에 나올 수 없고 큰 종이 울리면 거리에는 남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된다."고 기록해 여자들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구속되어 살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일찍이 만주에서 한국 성경을 번역, 출판한 존 로스(J.Ross) 선교사는 기독교만이 조선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바 있다. "기독교만이 조선에 있는 부녀자들을 정당한 사회적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그들에게 그 위치와 위신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즐겁고 덕스럽게 그 의무를 수행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그 누구나, 종족, 피부, 언어, 문화, 종교, 지역을 초월해 모두 동일한 존재요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남녀평등이란 명제 하에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여성 인권 회복과 성 차별의 철폐야말로 초기 한국 교회가 이루어 낸 값진 선교의 결과 중 하나다.

당신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요즘 미국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를 뽑을까?"로 열띤 토론 중에 있다.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같은 주제로 관심이 쏠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속에 정직하게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선거캠패인과 공개 텔레비젼 연설, 선거공약을 보면서 누구를 뽑아야할 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한 선거캠패인이 아닌, 서로의 약점을 들추며 공격하는 유치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미국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겉모습, 그들이 말하는 내용, 지금까지 쌓았던 그들의 경력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현재 미국 사람들이 받는 최대의 스트레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통계를 보며 저절로 기도가 터져나온다. 이 어렵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두 대통령 후보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들의 미래와 미국의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속에 있음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을 앞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대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의 선택도 기도하며 주신 지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주일저녁에 아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다민족 연합 기도회에 갔었다. 젊은 이들도 많이 모였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와 백인, 흑인, 히스페닉, 중국, 베트남 민족들이 함께 모여 미국을 위해, 특별히 오는 11월 8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다.

'회개, 회복, 대통령 선거, 상원 하원의원 , 부흥, 가정, 국가, 선교, 다음세대 등을 위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찌라(역대하7:14)"

미국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회개, 감사, 회복, 치유,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루어진다. 미국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 오는 것이다. 이 나라가 시작된 때를 기억해야 한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세계의 지도자 국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악한 길에 들어선 죄악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 서로를 비방하며 흠집내는 일을 멈추고, 본질적인 일에 힘을 합하여 다시 일어나야 한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신앙과 도덕, 그리고 인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진정 나라를 세우고 살려내는 일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겸손한 무릎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도이다. 전심으로 엎드리며 부르짖어야 한다.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다.

모든 국가와 개인의 위기 때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푸셨던 이 땅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참된 지도자 한 사람! 그 사람을 뽑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기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예레미야 5장 1절)"

미국은 0.3초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한다. Thanks라는 말을 하는 시간이 0.3초 걸리기 때문이다.

11월, 결실의 계절을 열며 치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본다. 안타까운 기도 속에도 소망을 갖게하는 한 사람의 외침에 힘을 얻는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모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미국이 다시한번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표어:"예수님이 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특별새벽부흥회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새벽부흥회

주제 : 감사하신 에벤에셀 하나님! (삼상7:12)

일시 11월 15일(화)~19일(토) 새벽 5시 30분

장소 남가주 벧엘교회 본당

1 **11월 15일(화)**
강사 : **김영일** 목사(섬기는교회)
예수를 만나 행복한 나(눅 19:1~10)

2 **11월 16일(수)**
강사 : **이용남** 목사(은혜세계선교교회)
영적 씨름꾼이 되라 (창 32:24~28)

3 **11월 17일(목)**
강사 : **강양규** 목사(남가주새언약교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인생(합 3:17~19)

4 **11월 18일(금)**
강사 :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영적 감각에 성공하라(민 20:2~8)

5 **11월 19일(토)**
강사 : **김제임스** 목사(토랜스포도원교회)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사 61:1~2)

오병익 담임목사
11월 20일(일) 오전 11:00
추수 감사 축제 예배
한 신앙인의 감사 찬양(시 103:1~22)

예배시간
- 주일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찬양예배, 오후 2시
- 주중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분
- 토요 새벽예배 토 오전 6시

남가주 벧엘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886-2562

2016 마지막 총정리
펄리우드빅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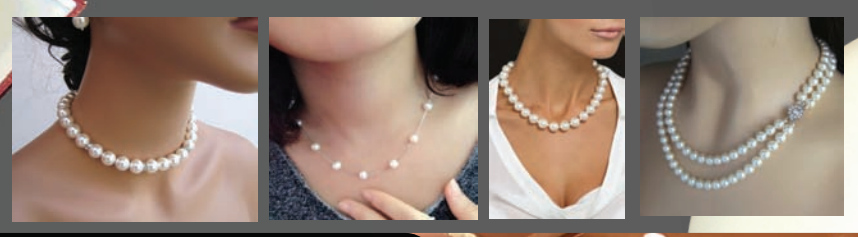
비드목걸이 전품목 할인가격에서 최대 50% 추가세일

가주마켓 California Market 특설매장에서 펼쳐지는 초대박 세일

2016년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이 창립 12주년을 맞아 올 한해 미 전역에서 펼쳤던 펄리우드 진주보석쇼가 대단원의 마지막 펄리우드쇼를 개최합니다.
1년중 최대 할인폭을 자랑하는 고베펄의 연말 총결산 진주보석쇼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커(Choker)스타일 진주목걸이 대량 출시 할인판매

Choker스타일이란?: 목을 타이트하게 감싸주어, 패션피플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타일의 진주목걸이



액땜해주고 행운 가져온다는
원형 진주목걸이 인기!

2016 NEW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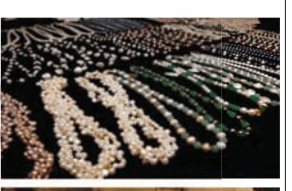
바로크 진주
BAROQUE PEARL
진주의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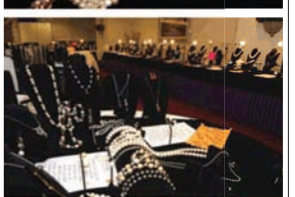
진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바로크진주
2016년 신제품을 대거 전시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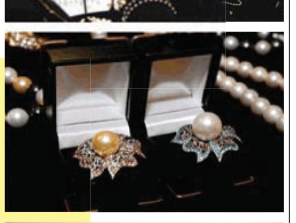
고베펄제품은 레이져공법과 수제품으로 서울. 강남고베펄공장에서 세공됩니다. 앞서가는 디자인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으로 미국 전지역에서 모든 한인여성들에게 인정 받는 고베펄제품 2016년. 신제품을 이번 펄리우드 쇼 행사에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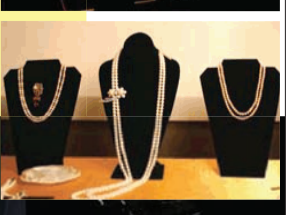
바다의 붉은꽃 홍산호!
각종 유색보석 전시판매!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이 2016년 여름맞이 1만여점의 진주보석과 유색보석 홍산호 제품등을 대거 전시 할인 판매합니다. 최대할인을 자랑하는 펄리우드쇼를 놓치지마세요!









HELEN AIKO
최고급 프리미엄 진주반지와
아코야 진주 비드 두줄 비드목걸이

여성의 우아함을 돋보이게하는 진주 비드 제품 전품목 세일 전시판매!

경제적인 가격대 진주 제품부터 최고급 아코야진주까지 일본공법 한국세공 고베펄 진주비드제품을 만나보세요.

가주마켓 고베펄 특설매장
행사 일정 : 11월 4일 (금) 부터 11월 13일 (일)까지
(5가와 웨스턴) 4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Kobe Pearl LAS VEGA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문의 전화 323.999.1558

*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8시까지 영업합니다.

가주마켓 California Market

중국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음악회가 팜스프링스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중국 선교 위해 찬양으로 하나돼

중국 선교에 한마음이 된 한인교회들이 팜스프링스한인교회에서 10월 29일 선교 후원음악회를 열고 6천 달러를 모금했다. 이 헌금은 중국 우루무치 지역의 선교에 사용된다.

중국 서부 지역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우루무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구도로서 카자흐스탄에 인접해 있고 도시 분위기도 중동이나 서남아시아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슬람 선교에 있어 요충지로 꼽히기도 한다. 팜스프링스한인교회(담임 최승목 목사)는 이 지역의 선교를 지난 8년간 후원해 왔는데 올해는 또 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 산돌교회(담임 나기영 목사), 나눔동산교회(담임 류창열 목사), 도브스 랜딩 크리스천 사립학교(케네디 교장), 팜스프링스 한미사랑선교회(황금희 권사), 찬양사역자 박숙희 선교사(태국)가 음악회를 통해 동참하게 된 것이다.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 전략 필요

엘에이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송재호 목사) 주최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퍼스펙티브 대표) 초청 '한국선교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역할' 주제 세미나가 10월 14일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에서 개최됐다.

한 선교사는 "선교의 무대는 서구 중심에서 비 서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성공회가 세속화될 것을 우려해 아프리카 지역 성공회가 주도해 세계성공회미래(GAFCON)를 창설한 것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2013년 1003명, 2014년 932명, 2015년에는 528명 등으로 급격히 파송수가 줄면서 선교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한 선교사는 세계선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적 선교뿐만 아니라 질적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선교사는 전략적으로 미국 다민족문화 속에서 우리 주변이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전략적인 논의와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16 목회자 이스라엘 세미나가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 열렸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약속 지금도 유효해

성경적으로 보는 이스라엘과 구원 계획 세미나 열려

이스라엘을 향한 성경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그럼 우리는?

2016 목회자 이스라엘 세미나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주제로 10월 24일~26일까지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에서 열렸다.

권혁승 교수(서울신학대)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의 관점에서 본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독립〉이란 강의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말한 뒤 예수님의 예언인 눅21:5~33, 마24:1~35, 막13:1~31을 예루살렘 멸망의 때, 이방인의 때, 재림의 때로 나누었다. 그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고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며 이방인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자 목사(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는 〈이스라엘과 열방, 미국의 관계〉란 강의에서 구약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고 수치스럽게 한 모든 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겔36:1~7, 겔25:3~17, 겔26:2~18, 겔27:26~27, 겔28:18~26)"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했다.

마이클 블래크 교수(리버티대학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체신학 논쟁〉에 관해 나누어 강의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느 국가를 사용하신다고 그것이 영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국가적 영속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신약 역시 마23:37~39, 눅13:34~35 등에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할 것이라 예언하며 롬11:26~27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뤄진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롬11에 나타나는 유대인의 국가적 회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 하나됨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함께 이뤄지고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교회 양쪽에서 함께 성취된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이 외에도 김인식 목사가 〈갈등의 핵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시는가〉, 박흥수 목사(왕의귀환 펠로십 디렉터)가 〈청교도의 소망, 이스라엘의 회심〉, 송만석 박사(KIBI 대표)가 〈이스라엘을 왜 축복해야 하는가〉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준형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재배한 대마초를 옮기고 있는 대마초 판매점 직원. ⓒ 케이아메리칸포스트

美대마초 오락용 사용 합법화?

11월 8일에 실시되는 대선…5개주에서 실시되는 주민투표

[1면으로부터 계속]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규모,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큰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면 미국 내 다른 주들과 멕시코 등 주변국가들도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에 동참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는 2014년 콜로라도에서 최초로 대마초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된 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성인들이 소량의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마초 관련 마약범죄가 대폭 줄고 대마초 판매를 통한 세수 증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콜로라도에서는 지난 1년동안 대마초 매매를 통해 총 7천만 달러의 세금을 걷어들였다.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면 향후 4년동안 대마초 시장은 올해 70억 달러에서 220 달러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대마초는 중독성이 강해 헤로인 등 더 해로운 마약을 하는 시작이 될 수 있고 합법화가 되면 어린이, 청소년들도 대마초를 피울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마초 오락용 사용 지지자들은 십대들이 대마초를 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미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마초를 피워본 사람이 거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윌리엄 버넷 전 교육부 장관은 "십대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합법적인 물건이기 때문"이라며 "대마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마초를 하는 것은 그동안 불법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법을 어긴다는 생각에 담배나 술보다 하지 않았지만 대마초가 '의약품'에서 더 나가 오락용이 되면서 그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그는 진단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대마초는 가장 강력한 단속 대상인 '스케쥴 1'에 속하는 마약이다.

연방정부는 주의 권한을 존중해 대마초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한 주에서는 대마초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방법과 합법화 주민투표를 한 주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등 큰 주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면 이 기세를 몰아 대마초를 처벌대상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숨겨진 바램이다.

최근의 퓨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57%는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지지하고 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마이어리츠가 발견한 성경책을 소개하고 있다. ⓒ처치리더스닷컴 영상 캡처

9·11테러 현장서 발견된 '성경 메시지'

심장 모양의 철 조각에 붙은 채 발견돼

15년 전 9·11 테러가 발생한 세계무역센터에서 잔해에 붙은 성경의 한 페이지가 발견된 적이 있다고 처치리더스닷컴(churchleader.com)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진작가 요엘 마이어리츠(Joel Meyerowit)는 "발견된 성경 조각은 콘크리트 먼지와 그을린 강철, 종이 냄새와 함께 심오한 무언가를 알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마이어리츠는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뒤 9개월 동안, 초토화된 세계무역센터 자리인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 머물며 잔해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러던 어느날, 소방관이 잔해를 샅샅히 살피던 마이어리츠에게 놀라운 것을 건넸다고 한다. 이는 성경 페이지가 붙어있는 '심장 모양의 강철(heart-shaped steel)'이었다.

손상되기 쉬운 종이가 재해 현장에서 보존된 채 발견된 것도 놀랍지만, 가장 주목할 것은 페이지에 담긴 성경 구절이었다. 이는 복수에 관한 가르침이 담긴 마태복음 5장 38~39절 말씀이다.

해당 구절은 예수님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가르치신 부분이다. 마이어리츠는 이는 "잔해에서 발견된 성경구절 중 하나"라며 "놀라운 말씀"이라고 말했다.

마이어리츠는 잔해 속에 묻혔던 이 성경책을 스카프로 둘러싼 후 가방에 넣어 작업실로 가져왔다고 한다. 이후 수년간 이 성경책을 보관하다가 지난 2010년 설립된 9·11 테러 추모관에 기증했다.

마이어리츠는 "성경은 생존의 이야기"라며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안에 경외로움과 경외심이 심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경 말씀은 수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마이어리츠는 9·11 테러현장에서 발견된 성경과 관련해 "연약하디 연약한 종이 뭉텅이가 손상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도킨스 교수가 '하나님은 없다'는 문구가 적힌 버스 앞에 서 있다. ⓒ 크리스천포스트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 도킨스?

'과학과 종교' 설문 결과 영국 과학계 80% 반감 드러내

새로운 무신론자들(The New Atheists)의 대표격인 리처드 도킨스(75) 옥스퍼드대 석좌교수에 대한 영국 과학계의 반감이 적지 않다고 뉴시스가 영국 인디펜던트지를 인용해 보도했다.

도킨스가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그릇된 정보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눈 먼 시계공〉, 〈 만들어진 신〉 등의 저서로 유명한 '스타 진화생물학자'이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미국 텍사스주 라이스대학 연구팀이 8개국 과학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영국 과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도킨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월 3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영국 과학자는 총 1,581명으로, 이중 137명은 심층면접조사에도 참여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문항에 도킨스에 대한 질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도킨스를 직접 거론하면서 그의 '과학과 종교에 대한 접근방식'에 비판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심층면접자 137명 중 80%는 "도킨스가 저서와 강연을 통해 과학과 과학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대중에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도킨스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리차드 도킨스 박사. ⓒ페이스북

도킨스가 과학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는 오래전부터라고 한다. 2014년에는 하버드대의 E. O. 윌슨 교수가 도킨스를 과학자가 아닌 '저널리스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발견해 2013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피터 힉스도 "도킨스가 근본주의자들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지만, 도킨스는 그 자신에 대한 근본주의자"라며 "과학과 종교에 대한 논쟁 자체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도킨스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창조론 또는 지적설계론을 학술적으로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무신론 확산을 위한 대중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웅 기자

'예수 무덤' 공개돼…수 백년만에 복원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안치된 곳으로 알려진 무덤이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무덤은 1555년 대리석으로 봉쇄된 뒤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묘교회'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허가를 받은 전문가들이 예수의 묘지를 복원하기 위해 예수의 몸이 사흘간 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을 봉인한 대리석 판을 들어 올렸다.

전문가들이 도르래로 대리석 판을 들어내자 아래에 공간을 메우는 잔해가 층층이 쌓여있었고, 이 잔해를 치우자 또 다른 대리석 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번째 대리석 판은 회색으로 작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으며 한가운데에는 금이 있었고 아래에는 희끄무레한 막이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고학자 프레드리크 히베르트는 "이 대리석 판이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적 분석을 하는 데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예수의 몸이 놓였던 돌의 본래 표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해 초 시작된 이번 복원 프로젝트에는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약 400만 달러(약 46억 원)가 투입된다. 복원 프로젝트는 내년 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은애 기자

北억류 임현수 목사, 2개월째 입원

캐나다 정부, 석방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아

[1면으로부터 계속]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임 목사 석방을 대가로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현지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 등이 태국 등 제3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직접 캐나다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위직 출신 탈북민으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인 김모 씨는 "임현수 목사의 억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캐나다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보다 정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큰빛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임현수 목사 석방을 위해 저녁 9시 매일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9.1.1 중보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기도제목으로는 △종신형 판결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임현수 목사님을 친히 도우시며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온 교회와 가족의 눈물을 보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목사님이 하루 속히 석방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들을 하게 하옵소서 등이다.

또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캐나다 정부와 북한 당국자가 임 목사님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 목사님과 가족에게 찾아가셔서 그 비통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셔서 다시금 온전케 하시며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드러나길 바라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등이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북한을 1백 회 이상 드나들며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나, 지난해 1월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으로 들어갔다 억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대웅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 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HAPPY THANKS GIVING
추수감사절 최고의 가족여행을 떠나세요

추수감사절 특선 1
캐나다동부 4일 ▶11/24 $1,399

- 11월24일 : LAX 출발(AM 07:50) - 몬트리올 도착(PM 4:04)
- 11월25일 : 몬트리올(성요셉성당) - 퀘벡(어퍼타운, 로워타운) - 몬트리올
- 11월26일 : 몬트리올 - 오타와 - 토론토 - 나이아가라
- 11월27일 : 나이아가라 - 토론토 출발(PM 6:00) - LAX(PM 8:45)

❶ 올해 나이아가라를 관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❷ 연휴 3박4일을 꽉차게 보낸다는 점 (별도로 휴가를 내지 않고 연휴를 알차게 보낸다는점)
❸ 퀘벡과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까지 제대로 즐기는 캐나다 동부

추수감사절 특선 2
캔쿤 4일 $1,399 ▶11/24

❶ 추수감사절 추천 최고의 가족 여행지
❷ 최고급 리조트인 문팔레스 리조트에서 ALL-INCLUSIVE 서비스를 즐기세요
❸ 추수감사절 '골프 무제한'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Special 1 Peru
안데스 문명의 중심 페루
5박6일 ▶10/30 $2,799
리마-쿠스코-마추피추-우르밤바-리마-이까-나스카
❶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1위 '마추픽추'
❷ 작은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물개섬
❸ 경 비행기로 즐기는 신비의 나스카 지상 그림
❹ 꽃보다 청춘 3인방을 홀린 '와카치나 사막'
❺ 황금의 신전 꼬리깐차

Special 2 las vegas Bellagio
한인 여행사 최초 / 추가요금 없습니다
벨라지오 호텔숙박

3일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매주화 출발	$299
4일	실속 4대 캐년	▶매주화 출발	$38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화/토 출발	$599
7일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매주화/토 출발	$689

Special 3 Grand Circle
그랜드서클 9대 캐년/ 세도나 6박7일
[특별출발] ▶11/24 $849
▶로스앤젤레스 - 라스베가스 - 윌리엄스 - 세도나 - 그랜드 캐년 - 페이지 - 파웰 호수 - 글랜 캐년댐 - 페이지 - 앤텔로프 캐년 - 모뉴멘트 밸리 - 모압 - 아치스 캐년 - 캐년랜즈 - 캐피탈리프 - 브라이스 캐년 - 라스베가스 - 캘리코 - 로스앤젤레스

미서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고문 동행
라스베가스/세도나 2박3일
▶월요일 출발 $249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킹맨/셀리그만 윌리엄스, 플래그스태프, 세도나, 몬테주마 웰 피닉스, 팜스프링스, 로스앤젤레스

서부 여행의 새로운 표준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숙박)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 매주 화 / 7일 매주, 화 토 3대 캐년 + 앤텔롭 캐년		
그랜드 캐년/라스 베가스 (벨라지오 숙박) ▶ 매주 화, 토	3일	$299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 매주 월, 목, 금, 토	4일	$389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숙박) ▶ 매주 화 토	6일	$599

HOLLYWOOD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Wow~ 천섬크루즈 포함
리얼 캐나다를 보다!
신상품 런칭기념
실속 캐나다 동부 5일 ▶매주 목 ~~$1,399~~ $1,099
토론토, 천섬, 몬트리올, 오타와, 나이아가라, 올드퀘벡(어퍼/로워타운), 총독관저, 캐나다 연방 의사당, 와이너리 (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까지) 방문

한국
No팁! No옵션! No쇼핑!
- 항공포함 / 전주, 해남, 외도, 경주, 영덕, 설악 등

전국일주 7일	▶토	$2,199
서남부권 4일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월/금	$1,499
평창올림픽/강원3일	▶수	$1,549

녹십자 퍼펙트 건강검진
건강검진+리무진+강남소재 호텔숙박
녹십자HS 멀티비타민 무.료.증.정
퍼펙트 플러스 검진 $530 건강검진만 $370
신체측정, 안구, 구강, 심전도, B형간염, 흉부X-ray, 소변검사, 혈액정밀검사, 갑상선기능,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퍼펙트 골드 검진 $600 건강검진만 $440
플러스 퍼펙트 건강검진+수면대장내시경

미동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명문대 탐방 5박 6일 ▶화, 토 $1,09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존스홉킨스 / 콜롬비아
명문대 탐방 7박 8일 ▶수 $1,16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콜롬비아 (나이아가라)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4명 이상 출발

"푸른투어는 동부여행도 직접 운영합니다"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올랜도 특별상품
디즈니, 유니버설 등 에버글레이드 에어보트 ▶매주 화
올랜도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애미 3일 $849 4일 $949
올랜도/마이애미 4일 $1,399 5일 $1,499

쿠바
카피톨리오 / 산 프란시스코 광장
존엄광장 / 반얀 트리 공원헤밍웨이 박물관
프라도 거리 / 바에 궁 / 비날레스 계곡
▶4명 이상 수시출발 : 팁포함 / 항공불포함
4박 5일 $1,335 / 5박 6일 $1,820 / 6박 7일 $2,155

멕시코
하얏트지바 로스카보스 숙박
신혼여행 / 골프패키지 All Inclusive 서비스
로스카보스 4일 $659 +항공 5일 $800 +항공 6일 $1000 +항공
칸쿤 4일 $800 +항공 5일 $950 +항공

뿌라비다 코스타리카
활화산 용암 온천물로 즐기는 알레날 온천욕
뽀아스화산/리베리스나비/폭포공원 관광 포함

3박 4일	▶11/24, 12/20	$910 +항공
4박 5일	▶11/23, 11/24, 12/3 12/21, 12/22, 12/23	$1,020 +항공
5박 6일	▶11/29	$1,140 +항공

남미

바다위의 리조트, 크루즈
특급 프린세스
미주 최대의 직영점을보유한 푸른투어만의 남미완전일주
페루/이과수/리오와 남미완전일주크루즈 23일 $4,999 ▶2017년 1월 14일
[남미] 〈아말리아빙하〉크루즈와 이과수/리오데자네이로 20일 $4,299 ▶2017년 1월 17일
특급 프린세스와 함께하는 남미일주 크루즈 17일 $2,999 ▶2017년 1월 17일

피지/호주/뉴질랜드 18일 $4,599
남태평양 최고의 자연경관 피요르드 랜드 내셔널 팍 ▶2/19
천혜의 유양지 남태평양 파라다이스 피지와 뉴질랜드 남북섬, 호주로 이어지는 환상의 크루즈 여행

크루즈 런칭 기념 PRINCESS CRUISE 특선
* BAJA MEXICO 5일 ▶11/27 $345
▶ 11/27 LOS ANGELES / SANTA BARABA / ENSENADA (CROWN PRINCESS)
* MEXICO RIVIERA CRUISE 8일 ▶11/12, 12/10 $699
▶ LOS ANGELES / PUERTO VALLARTA / MAZATLAN / CABO SAN LUCAS (RUBY PRINCESS)

멕시코 / 캐러비안 크루즈
바하멕시코 4일 ▶매주 목, 금 $299 부터
바하멕시코 5일 ▶매주 일, 월 $299 부터
바하마 캐러비안 크루즈 5일/8일 ▶수시출발 $799
전세계 크루즈 ▶수시출발
▶ 파나마운하 / 남미(남극)크루즈 / 쿠바크루즈 / 하와이 남태평양 / 갈라파고스 / 알래스카 / 지중해 /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피요르드 / 그리스. 흑해
*크루즈 상품은 출발일마다 계약시점에 따라 요금 변동 있습니다.

유럽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중세 유럽으로의 시간여행'

감성과 낭만의 스페인 완전 일주 8일 ▶11/20 출발 $2,399
▶ LA - 뉴욕 - 마드리드 - 톨레도 - 세비야 - 론다 - 그라나다 - 발렌시아 - 바르셀로나 - 뉴욕 - LA
프라도 미술관 / 똘레도 대성당 / 뿌엔떼 누에보 / 알함브라 궁전

지중해의 열정이 가득한 이태리 일주 8일 ▶12/13 출발 $2,399
▶ LA - 뉴욕 - 밀라노 - 베로나 - 베니스 - 몬테카티니 - 피렌체 - 티볼리 - 폼페이 쏘렌토 - 나폴리 - 로마 - 뉴욕 - LA
베니스 곤돌라 체험 / 산마르코 성당 / 아씨시 관광

크로아티아 완전일주 + 슬로베니아 / 보스니아 10일 특별출발 ▶11/5, 11/25 $2,999
▶ LA - 뉴욕 - 플리트비체 - 두브로부니크 - 스플릿 - 라스토케 - 블레드호수 포스토니아 동굴 - 파란, 모스타르 - 메주고리예
크로아티아 / 보스니아 / 플리트 비체호수

정통 서유럽 12일 ▶수시출발 $3,39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태리
정통 동유럽 10일 ▶수시출발 $2,999
뮌헨/프라하/크라카우/비엘리츠카/부다페스트/비엔나

동서유럽 20일 ▶수시출발 $5,199
런던/파리/인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비엔나 등
미니 서유럽 8일 ▶수시출발 $2,899
런던/파리/인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비엔나 등

꽃보다 발칸 5개국 8일 ▶수시출발 $3,099
4성급 호텔이상, 전용버스, 입장료포함 전 일정 특식제공 - 해물파스타/송이구이/호이리게
스페인/포르투갈 11일 ▶수시출발 $3,199
리스본/세비야/코르도바/똘레도/바르셀로나

그리스/터키 11일 ▶수시출발 $3,099
이스탄불/카파도키아/콘야/안탈야/파묵칼레/에페소/데살로니까/고린도/아테네
이태리 일주 7일 ▶수시출발 $2,799
밀라노/베니스/피사/피렌체/로마/폼페이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1,749 +항공
▶출발 : 11/16, 11/23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 마오리 민속마을 / 아그로돔 농장
스카이 라인 곤돌라 탑승 / 장미공원 / 거울 호수 관광
밀포드 사운드 / 본다이 비치 / 하버 브릿지 / 오페라 하우스

하와이
호텔 인&아웃 픽업 서비스 포함
호놀룰루 시내관광, 오아후 섬 일주 관광
퀸카피올라 호텔 4일 $799
애쉬톤 와이키키 4일 $929
하와이 허니문 3일 $1,349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륜교회 본당은 기도회 시작 2시간 전부터 어미 성도로 가득 찼다.

3,114개 교회와 함께 하는 21일의 기도 대장정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 "부흥의 불을"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가 3,114개 교회와 함께하는 21일 간의 '기도 대장정'에 나섰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2016 다니엘 기도회'가 1일, 서울 강동대로 오륜교회 본당과 인터넷 생중계로 이를 시청하는 국내·외 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오륜교회 본당은 기도회 시작 2시간 전부터 이미 성도로 가득 찼다. 기도회는 오후 7시 20분 생방송 송출을 시작으로, 참여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문화공연, 한국교회와 지역을 위한 기도합주회, 찬양, 공동기도, 설교 등을 거쳐 집중기도회로까지 이어졌다.

기도회 준비위원장이기도 한 김은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21일 기도를 위해 그 몇 배에 달하는 날들을 기도와 땀으로 채운, 그런 헌신의 열매로 기도열기가 뜨거웠다. 기도회에 참여한 한 교인은 "본당에 들어선 순간, 얼었던 마음이 녹고 있음을 느꼈다. 기도회를 준비했던 그 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뭉클했다"며 "오늘처럼 기도가 간절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기도회는 오는 21일까지 매일 하나의 지역을 정해 그곳 교회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참여한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1일은 제주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다. △하나님나라 확장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 되기 △부흥의 불이 타오르길 △다음 세대의 성장과 양육 등이 이 지역 기도제목이었다.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도 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등이 그것이다. 올해부턴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몸이 아픈 이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도 빼놓지 않는다.

이날 '한 밤 중에 일어난 기적'(사도행전 16:25~26)을 제목으로 설교한 김은호 목사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와 찬송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들이 기도하니 옥터가 흔들리고 마침내 옥문이 열려 매였던 모든 것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았다"며 "이처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목사.

김 목사는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매였던 것이 풀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적이 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그 자체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기적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분을 찬송했다"고 강조했다.

이 기도회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배 선교사(2일), 국내 첫 장애인 앵커인 이창훈 KBS 앵커(5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7일), 전 SK 와이번스 이만수 감독(8일), 인도 갈보리템플 교회 담임인 사티쉬 쿠마르 목사(15일),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최선자 권사(18일)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명사들이 강단에 오른다.

김진영 기자

한목협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영적 거룩성 회복하자

한목협…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예배 드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 이하 한목협)가 27일 오후 서울 소월로 중앙루터교회에서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김경원 대표회장이 인도한 이날 기념예배는 최기학 목사(예장통합 부총회장)의 대표기도, 최부옥 목사(기장 증경총회장)의 설교, 각 교단장 및 부교단장·총무가 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언'(이하 종교개혁 500주년 제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요청'(이하 종교개혁 500주년 요청) 발표, 합심기도, 손인웅 목사(한목협 명예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개혁자 아브라함을 본받아'(창 13:1~9)를 제목으로 설교한 최부옥 목사는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 롯과 헤어지면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그보다 어렸던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며 "오늘날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혈통이 아니라 그의 영성과 정신, 삶을 닮은 자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섬긴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우리의 생명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핵심은 사랑이며 약자를 섬기고 배려하는 데 있다"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가' 하는 것이다. 약한 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어찌 진정한 통합과 일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 서로 밀고 끌어주면서 종노릇하는 감동의 역사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불투명한 교회재정, 분쟁초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28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에서 '교회와 재정'을 주제로 제10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교회재정 투명성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황호찬 대표(세종대 경영학과,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는 "교회의 재정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교회재정의 투명성은 교회 존속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교회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지도자를 불신하게 되고, 불신이 쌓여 불만그룹이 세력화되면 교회분쟁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분쟁 요인으로 △기대치 차이 △관행에 대한 막연한 믿음 △교회의 무관심 △교회의 개별화 현상 △회계시스템의 부재 △회계/재정관리에 대한 지식부족 및 전문가 부재 등을 꼽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황 대표는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회계 및 재무를 다룰 교인 혹은 직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한재협'과 같은 전문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재협은 기독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재정투명성 확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끝으로 황 대표는 "기존의 회계·재정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보완해 교인과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은애 기자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심포지엄…한국교회의 통일 관심 촉구

[1면으로부터 계속]또 "한국교회는 예배당 안에 갇힌 교회가 되어 이러한 모습에 회의를 느낀 성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안 나가는 '가나안 신자'가 되었다"면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본분을 기억하며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교회 공적 역할은 분단의 땅을 교회의 과제로 가져오는 것"이라 지적하고, "2500만을 어둠에 가둔 채, 가장 무서운 죄악의 온상인 남북 분단을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모른 채 하면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면서 "복음에 입각한 한국교회의 통일신학 정립은 중요한 과제"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도홍 박사의 발표 외에도 "종교개혁과 사회개혁: 사회변동의 영향사 측면에서"(김주한) "제2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꿈꾸며: 한국사회 정신개혁운동으로 승화"(박종화)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논찬 및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말테 교수(루터대) 김선영 교수(실천신대)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 박영환 교수(서울신대) 등이 패널로 나서서 수고했다.

조은식 기자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전도용품 세일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향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교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시대의 물음에 답할 수 있나?

크리스티안 링크 박사가 수표교교회(담임 김용성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10월 30일 오후 '종교개혁: 교회의 정체성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제8차 '수표교 포럼'에서 발표했다.

수표교교회(담임 김용성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10월 30일 오후 '종교개혁: 교회의 정체성 모색'을 주제로 제8차 '수표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독일의 신학자 크리스티안 링크(Christian Link) 박사가 '종교개혁: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김영한(기독교학술원 원장)·한정애(협성대 신학과 교수) 박사가 논평했다.

스위스 베른대학과 보쿰-루르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한 링크 박사는 "종교개혁은 복음이 선포된 최초의 교회의 형태와 사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교회의 자기 정체성 찾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종교개혁의 특징 중 하나로 '칭의'를 꼽으며 "이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가르침"이라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과 달리 성서 안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어린이와 부모, 학생과 선생 사이의 관계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링크 박사는 "루터는 우리가 선물 받은, 우리에게 낯선, 그래서 수용되었을 뿐인 수동적인 의로움을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일함으로써 갖게 되는 우리의 행위, 혹은 마음의 내적·외적 표현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기억한다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다시 바울이 제시하였던 교회의 최초의 근거로 되돌아가는 일"이라며 "그리고 거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놓여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가오심, 그분의 은총만이 넘칠 뿐"이라고 했다.

이어서 '성화'를 다룬 링크 박사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이끌어가지만 사랑은 그를 다시 땅으로 불러 내린다"며 "칭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는 또한 지구의 모든 만물을 위한 자유이기도 하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끈질긴 노력만이 한국교회를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로, 이 땅 위의 소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성화의 사명은 그렇기에 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여러 가지 세속적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교회가 이 세계 안에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나님나라의 행동 규칙을 실행한다면, 그것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규모의 것이라고 해도, 교회는 자신의 미래의 지평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교회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링크 박사는 끝으로 '교회 일치 운동'을 강조했다. 그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김질 하는 일이 단지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교회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교단들과 그룹들에 대하여 여전히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서 교회일치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라며 "만일 우리가 오직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한 채로 다양한 소리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이 세계는 우리의 주장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동일한 정치질서, 하나의 예식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다"면서 "교회 일치 운동의 주제는 '다른 교회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통일성은 아마 서로 '화해된 다양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링크 박사는 "종교개혁은 그 당시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일어난 많은 사회적 위기들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적합한 답변을 줄 수 있었기에 사실 매우 성공적인 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과제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시대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합하게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즉 이 세계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묻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또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은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기독교인들이 이 세계를 향하여 진지하게 다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평한 김영한 박사는 "링크 박사는 우리들에게 세계의 기독교인에게 현재적으로 직면한 과제를 각성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향한 증언과 봉사를 위한 생명과 책임의 책으로 드러냄과 오늘날 지구의 갈등 속에서 평화의 일을 하는 것과 우리 삶의 원천이요 목표인 하나님 찬양"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역설하는 링크 박사의 강연은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밝히면서 한국교회가 아직도 소홀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문제와 창조 세계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각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깨우치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가장 유효한 대처법

최 더 함 박사
개혁신학포럼 총괄책임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혁교회는 신조와 함께 세워지고 발전해 왔다. 16~17세기는 신조의 시대였다. 믿음의 선조들은 후예들이 지침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지침들인 '교리'를 신조 혹은 신앙고백서의 형식으로 만들어 물려주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나타난 경건주의는 '교리보다는 삶'이라고 주창했다. 교리를 자유롭고 다양한 삶의 질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18세기 들어서는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개혁교회가 교조주의에 빠져 죽음의 길을 걷는다고 비판했다. 19세기 자유주의는 아예 교리무용론을 앞세웠다.

20세기에는 신복음주의자들에 의해 교리라는 지루하고 딱딱한 음식이 폐기되고, 입맛을 돋우는 인스턴트식의 싸구려 복음이 활개를 쳤다. 이에 대해 메이첸(Gresham Machen)은 '삶보다 교리가 우선'이라고 주창하며 다시 개혁교회의 교리를 살리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신조 및 신앙고백서 즉, 교리에 대한 거부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1세기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고 연구하여 교리를 확립하고 교회의 개혁을 이루는 정통의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 그나마 개혁주의의 길을 걷는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곤 대다수 교회들이 너도 나도 원칙도 없고 방향도 없는 망망대해의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지키는 일에 달려 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숨을 받아 마시지 못하면 끝이다. 교리는 성경이라는 원재료에서 추출한 영양식이다. 교리는 신자의 숨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산소통이다. 교리를 버리는 일은 호흡이 곤란한 환자가 산소마스크를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교리무용론을 외치거나 교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진정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아니다.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를 춤추게 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일으켜 빨리 뛰게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환자를 환자로 인식하지 않은 의사는 더더욱 위험하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부인할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우리 선조들은 바른 교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위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성령에 의지하여 각 시대와 나라와 전통과 당면의 과제와 처한 현실에 따라 적합한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을 작성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쉼 없이 교리교육을 통해 주님이 주신 믿음을 보존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첫째 사명인 것이다.

교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하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칼빈(J. Calvin)은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교육이 없이 유지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한 성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신이 오랫동안 붕괴되지 아니하고 튼튼히 서 있는 집을 짓기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매우 유효하게 이 신앙교육서를 교육하여 믿음에 이끌어 지도록 염려하고 돌볼 것"을 충고했다.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교회적 전통은 성경과 신조를 함께 지켜가는 것이다. 성경 말씀의 전체 내용을 그 중요성에 따라 잘 정리함으로써 말씀의 어떤 부분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또는 제거, 과장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이 신조 작성과 교육이었다. 바른 신앙은 성경과 신조에 근거한다.

다음으로,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이단들은 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성경을 곡해하며, 진리의 어떤 방면을 과장하고 다른 본질적인 방면을 부정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선수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보존을 위해 각각의 모든 교리들을 정확히 규정하여 잘못 해석된 것을 바로잡고, 모든 오류를 제거하여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증거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린스턴의 조직신학자였던 핫지(C. Hodge)는 "이단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타나서 성경을 곡해하고 말씀의 어떤 부분을 과장하거나 멸시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거짓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가장 유효한 대처법은 모든 성도가 교리라는 반석 위에 서는 것이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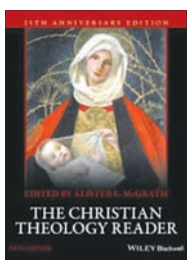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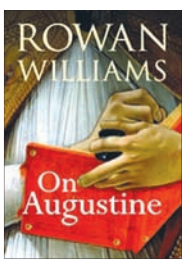
신간 추천

Christian Theology Reader, 5th Ed.
McGrath, Alister E. | Wiley-Black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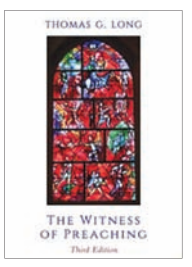
소개가 필요 없는 작가 맥그래스가 편집한, 소개가 필요 없는 책이다. 이 책은 열 가지 커다란 주제(신학 서론, 신론, 예수의 인격, 예수를 통한 구원, 인성-죄-은혜, 교회, 성례, 기독교와 타 종교, 종말론) 속의 작은 378개의 주제에 대해 수많은 신학자가 말한 것을 '직접' 보여준다. 자료를 찾아 주제별로 정리하는 작업, 즉 까다로운 '선정 작업'을 맥그래스가 직접 했다.

On Augustine
Williams, Rowan | Bloomsbury T&T Cl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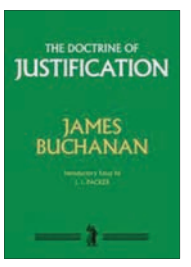
로완 윌리엄스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다. 이 책은 저자가 25년간 어거스틴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와 개인적인 사색을 통해 정리한 생각을 쓴 책이다. 어거스틴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개인이 온전히 돌아본다는 것은 사실 무리다. 그래서 윌리엄스가 그 작업을 대신 해주었다. 자신이 읽은 어거스틴을 통해 얻은 통찰들을 독자와 나누어 준다.

Witness of Preaching, 3rd Ed.
Long, Thomas G. | John Knox Press



토마스 롱은 에모리대 설교(설교학) 교수로 가장 감동적인 설교자 중 한 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저자는 1980년대에 이 책의 초판을 쓰면서, 우선 기독교 설교에 대한 기본적 교과서를 만드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설교를 처음 배우고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 서론으로 쓰이기를 원했다. 이 책은 신학생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적절한 책이다.

Doctrine of Justification
Buchanan, James | Banner of Truth Trust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의 논쟁'이 20세기에 속한 어제의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칭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다양한 현대 신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깊이 있는 고전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1867년 처음 출판된 뷰캐넌의 이 책이 2016년 retypeset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어권 개신교 칭의에 대한 책 중 가장 최근의 책이라 할 수 있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성 리더십의 회복이 교회 회복으로 이어진다

이 책은 보수교단의 최전선에서 '교회 여성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자신의 학문과 삶을 녹여내 불균형한 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여성성을 일으키고자 한다. 저자는 여성 신학자로서, 교회 안에는 여성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리더십에 여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 이유와 원인을 신학적·성경적·문화적으로 논리 있게 풀어간다. 또한 자신의 과거와 상처까지 드러내 가며 진솔하게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책은 총 7부로 구성되는데, 1부 '여성이 기독교 신앙을 말하다'에서는 그 동안 교회가 남성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남성중심적 질서와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교회는 여성의 은사와 소명과 영성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져 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2부 '신학의 렌즈로 성(性)을 보다'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여성도 종속적일 수 없으며, 남녀가 파트터십을 이루어 자유와 평화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3부 '여성의 눈으로 구약성경 읽기'에서는 돕는 베필과 현숙한 여인의 의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사라의 하나님을 설명한다. 또한 모세를 살린 여인들과 슬로브핫의 딸들과 여성 사사와 여성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은 여인들을 보여준다. 4부 '여성의 눈으로 신약성경 읽기'에서는 복음서에

여성이 만난 하나님
강호숙
넥서스CROSS | 276쪽

등장하는 여성과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난 여인들을 소개하고, 부활 복음을 처음 접한 여인들을 설명한 뒤 초대교회 여성들의 눈부신 활약을 제시한다.

5부 '기독 신앙과 성윤리'에서는 교회 안에 성윤리를 회복하고 신학적으로도 재정립해 갈 것을 주장하며, 6부 '기독 여성의 인생과 사랑'에서는 남녀가 서로의 정체성과 역할을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한다. 7부 '미래를 위한 교회의 리더십'에서는 현재 교회에 여성의 리더십이 약하고 더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교회 안에 여성리더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세워야 함을 주장한다.

이렇게 저자는 지난 날 교회와 신학이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여전히 그 구조와 한계를 유지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바른 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을 향해 '잠잠하라'는 무식한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성은 설교할 수 없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남성 편향적인 말도 사라져야 한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여성이 가진 고유한 섬세함과 따뜻함으로 사역하게 도와 주어야 한다. 오히려 요즘 같이 망가지고 병들어 신음하는 시대와 교회에는 여성 사역자들이 더 필요해 보인다.

방영민 복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스리뷰]

자녀의 믿음에 '성품'을 더하자

작은 예수로 키우기 위해 자녀에게 심어야 할 12가지 보석

한기채 목사님이 들려주는,
십대가 맺어야 할
신앙 열매 12가지

작은 예수 성품 교실
김찬홍, 한기채
넥서스CROSS | 200쪽

〈작은 예수 성품 교실〉은 십대 어린이 ·청소년이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발견하고 길러야 할 12가지 성품들에 대한 이야기책이다.

겸손, 순종, 긍휼, 배려, 책임, 인내, 정직, 절제, 온유, 용기, 성결, 평화를 다루는데, 그 성품은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지, 그리스도인에게 그 성품은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 전달한다. 특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식의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

저자는 성품이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하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 우리의 도덕성과 영성을 관계를 통해 보여 준다고 한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이 '도덕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은 '영성'이라고 하겠다.

좋은 성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이자
우리를 향한 크나큰 선물

이 책에서 말하는 12가지 좋은 성품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알고, '온유'하고 '배려' 깊은 사람은 어렵지 않게 다른 이들과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 서로 관련 있는 성품을 골고루 함께 성장시켜 나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 12가지 성품을 모두 가지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절제'하고 '용기' 있지만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책의 주 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각의 성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작은 예수 성품 교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영성과 도덕성을 닮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저자가 들려주는 12가지 좋은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자녀에게 선물하여 읽힐 수 있고, 부모와 교사가 대신 읽어 줄 수도 있다.

한편 저자 김찬홍 목사는 국내에선 흔치 않은 이론 영성학자이자 실제적 영성을 고민하는 목회자다.

그는 세속적 영성에 밀려 위기에 처한 기독교 영성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미국 보스턴과 뉴욕에서의 목회 경험을 통해, 다원주의 시대에 적합한 공감과 소통의 영성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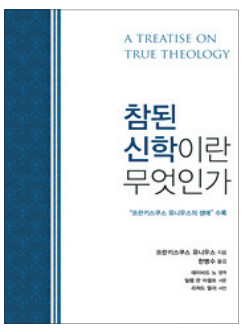
저자 한기채 목사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자신의 간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그는 기독교 윤리학자이면서 목회자다. 신앙의 의식화와 신앙의 생활화를 강조하며 기독교적 영성과 윤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다. 거룩한 성품만이 21세기의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사랑과 생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 분야로 들어가는
학문적 서론 제공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
프란키스쿠스 유니우스
부흥과 개혁사 | 302쪽

유니우스의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는 신학 분야로 들어가는 학문적 서론을 제공한다.

유니우스는 신학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 숙고하고, 거기서부터 신학의 다양한 유형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이 책은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교의학에 접근할 때 본보기가 되는 방식을 세웠고, 그래서 후대의 많은 신학 서론이 이 방식을 따른다.

이 책에 함께 실린 〈프란키스쿠스 유니우스의 생애〉는 개혁파 교회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종교 전쟁 당시에 직면했던 복잡한 상황과 파란만장했던 유니우스의 삶을 자전적으로 설명한다.

저자 프란키스쿠스 유니우스(Franciscus Junius)는 개혁파 정통주의가 발전하는 시기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자 신학 교수였다. 카시미리아눔 노이슈타트,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레이든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다.

그는 언어에 능통한 학자이자 성경 주석가, 신학자로서 유니우스는 개혁주의 전통을 형성하는 데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 성경 주석, 히브리어 문법, 해석학, 교의학, 교회법, 자연법, 정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지만, 대표 저작으로는 〈신학 논제들〉(Theses theologicae), 〈보편적 교회의 평화에 대하여〉Eirenicum: De pace ecclesiae catholicae),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De theologia vera)를 꼽을 수 있다.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스리뷰]

성령 역사와 마귀 역사

섣부른 이분법을 경계하며

누가 방언을 금하는가
김동찬
베다니 | 237쪽

◈방언이 무엇이길래?

사실 한국교회 안에는 은사에 대해 긍정적인 교회와 부정적인 교회가 공존하고 있다. 성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은사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특히 방언은 예언이나 신유 등의 은사와는 달리 매우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체험으로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마귀도 방언을 할 수 있다. 방언의 통변을 믿을 수 없다. 수많은 논란들이 현존한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 방언 문제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과거 은사체험주의자들이 방언을 구원의 증표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침이 있다.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심각한 물의가 일어났던 것이다. 방언의 특징상 이성적 믿음이 중심이 된 자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정서적 중심의 신앙인들에게 체험되는 것으로서, 이성적 믿음이 강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도전이었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도발이었다.

거기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저명한 B. B. 워필드 박사를 필두로 하여, 웨스트민스트의 리처드 개핀 등의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이론들이 미국 유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한국교회 안에 은사에 대해 모호한 입장(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이 결국 체험신앙인들의 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성령의 체험은 교회 안에서 음성적으로 혹은 기도원이나 외부모임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여전히 체험의 명맥은 교회 안에 남아 있다. 하지만 그 명맥이 음성적으로 이어지면서 매우 약해졌고, 신학적 자양분이 차단됨으로 왜곡과 탈선이 심각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관적 체험만을 늘어놓을 뿐 영적인 원리들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며, 그저 먼저 체험한 사람의 체험 스토리만 이어질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 실상은 신학이 체험에 대해 외면한 결과이다.

◈이성적 신앙과 정서적 신앙

사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성 중심의 신앙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성적 믿음, 정서적 믿음, 의지적 믿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전인적 믿음과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나아가 육체적 믿음, 환경적 믿음, 사회적 믿음, 문화적 믿음 등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필자도 방언기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방언에 대해 아직 기독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없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언기도는 '정서적 기도'라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견해이다. 즉,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는다. 하지만 그것이 정서적 내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 정서적 받아들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기에 섣부른 이분법 즉,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저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식의 접근법을 내려놓아야 한다. 본서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성이 정서보다 더 우월한 것일까?, 아니면 정서가 이성보다 더 우월한 것일까? 이런 비교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성적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소모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장난은 아닐까?

이성적 신학이 체험을 돕고, 체험적 신앙이 이성적 신학을 더 풍성하게 하는 함께함은 불가능한 것일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유한다.

이 책이 꺼져가는 신앙체험에 대한 불씨가 되고, 이성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쓰여지길 바란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November 3, 2016 Vol. 75

'True Prosperity is Knowing God'

KCM College Students Reminded of 'Greatest Reward' of the Gospel

BY RACHAEL LEE

About 600 college students from various campuses in Southern California gathered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on October 29 for KCM's third annual 'Gospel Renewal Night.' Pastor Steve Lee (center) was featured as the main speaker. (Photos courtesy of KCM)

"You are a prospering sinner."

Such was one of many phrases emphasized by Pastor Steve Lee from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on Saturday in his message to some 600 college students at the 'Gospel Renewal Night' hosted by 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 (KCM).

This is the third time KCM, a college ministry comprising mostly of Korean American students from eight campuses in Southern California, has hosted the joint campus worship night.

"Our hope is simply that the students were refreshed and renewed by the Gospel," said Sam Bay, the special events coordinator of KCM. "We also always hope that there are non-Christians who come and are challenged to consider the Gospel for the very first time."

Of the phrase 'prospering sinner,' Lee focused primarily on the 'prospering' aspect on Saturday night. Lee, who also serves college students as the college ministry pastor at Living Hope, started by asking the collegians whether they have ever felt like they have always tried to do good and live well, but rather than those good efforts leading to more 'blessings,' "things just go south." Meanwhile, people who seem to live immorally and "have no regard for God" seem to prosper and live even more happily than those who try to pursue righteousness.

"If you have felt that way, you are not alone," said Lee, who spoke on Psalm 73, a passage in which the author, Asaph, recounts a time when he was envious of those who lived wickedly. However, at the conclusion of the passage, Asaph praises God.

"When he [Asaph] sat with God, he was reminded of not only God's work, but his worth," Lee said. "He is the greatest thing in all of existence."

Lee said that Christians often forget the awe that comes with the fact that they have access to God himself, and that God pays attention to each individual.

"Because of Christ and what he has done, we can say, 'I have God with me.' He knows my name, and I know him. When we say, 'Father,' his undivided attention is on us. Why is that no longer crazy to us? Why is it that, so rarely we wake up in the morning and we say, 'Wow,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he's mine.' Instead, we wake up in the morning and we say, 'Man, why does that guy get to have that?'"

"The reality is, true prosperity is actually knowing God," Lee said. "True prosperity is knowing and having relationship with the greatest thing in existence."

"This is why the gospel is so beautiful. This is why the gospel matters and is so truly good news. You know what the gospel brings you to ultimately? God. You get God," Lee continued. "The greatest reward of the gospel is God himself."

The Gospel Renewal Night is one of several joint campus events that KCM hosts each school year. Some other joint campus events that take place during the year include the Fall Sports Fellowship, a day of sports and activities; the Winter Conference, an all-campus retreat; Mission Rally Night, a worship event to encoura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summer mission trips; Powderpuff, a girls' football tournament; and an all-campus softball tournament. The Winter Retreat will be taking place from January 2 to 5.

"We particularly picked GRN to happen in the fall because that is when all the schools are starting," said Sam Bay. "We wanted to make it clear that the Gospel is central to what we want to communicate to our students and to also provide an avenue for our students to bring their friends and non-Christian peers."

The Gospel Renewal Night also featured worship led by Kay Lim, a KCM staff and the worship pastor of Good Stewards Church.

KCM is one of the largest Korean American college ministries in the Southern California region, and has a presence in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cluding UC Irvine, UCLA, UC Riverside, UC Santa Barbara, UC San Diego, Biola University, Pepperdine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ev. Hyeon Soo Lim, Detained in North Korea, Hospitalized Due to Worsening Health

Korean Canadian pastor Hyeon Soo Lim (senior pastor of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Toronto), who has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for nearly two years, has been hospitalized due to worsening health conditions for the past two months. According to Radio Free Asia, Canadian diplomats told Lim's family that he has been hospitalized and receiving treatment since August.

However, the diplomats also noted the difficulty of negotiating with North Korean officials, and have not detailed the content of the negotiations, according to the Radio Free Asia report.

Lim, who has been involved in humanitarian work in North Korea, has visited the country over 100 times. Lim has been called the 'Godfather of North Korea Missions' by some, and had been involved in establishing noodle and ramen factories, a children's nursery,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a hospital, and an English school, among other institutions in North Korea.

However, he was detained during his last visit in January of 2015, and was sentenced to hard labor for life in December of 2015.

In an interview with CNN in January of 2016, Lim said that he is "fine," and that he receives three meals per day along with medical care.

Lisa Pak, spokesperson for Lim's family, told the Toronto Star in early October that the family is "very concerned that [Lim's] health may have declined and those concerns are heightened precisely because we have no information."

Light Presbyterian Church released a public statement earlier this month calling on the Canadian government to continue their efforts to secure Lim's release, noting the government's role in the release of Homa Hoodfar who had been imprisoned in Iran, and Kevin Garratt, who was imprisoned in China.

"We know that in both cases the highest level of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ime Minister Trudeau himself, were instrumental in securing the release of these fellow Canadians," said the statement. "We urge the Canadian government to demonstrate the same attention and determination when engaging in diplomatic talks with the North Korean officials."

Religious Belief a Top Influencer in Voting Decisions, According to Barna Survey

Religious beliefs are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people's preferred candidate for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a new study by Barna Group.

The Barna Group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1,023 US adult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in September, out of whom 908 were registered voters and 627 were likely voters.

About 18 percent of the participating adults said that their religious beliefs mattered 'a lot' in making their decision about voting for the next president, followed by 10 percent who said that their family members primarily influenced them in their choice.

Only 8 percent attributed their decision to media in shaping their opinion on the candidates, while others mentioned friends (7 percent), campaign advertisements (7 percent), political commentators on TV (6 percent), radio (6 percent), social media (5 percent), publications (5 percent), and church pastor (7 percent) as having influenced their voting decision.

Among those people who listed religious convictions as a major motivator in coming to a voting decision, evangelicals (75 percent) were most likely to agree that religious beliefs influenced their opinion 'a lot.' Evangelicals also said the opinions of their church pastors (22 percent) and family members (21 percent) were influential in forming their views on electoral candidates.

Religious conviction was also on top of the list for non-evangelical born again Christians (30 percent), while some 10 percent from among this group did not cite any other factor as having influenced their decision.

Non-Christians' opinion on the political candidates was shaped most by news media (18 percent), followed by their respective religious beliefs (15 percent) and political analysts on TV (12 percent).

Born again Christians' opinions on what factors has influened them also varied among different age groups.

About half of the born again Christians under the age of 50 said that their religious convictions mattered a 'a lot' in their voting decisions, while only about 30 percent of those over the age of 50 considered religious beliefs as supremely important.

People with different political leanings were markedly divided in the role religious beliefs played in their voting choice. Conservatives (38 percent) were more likely than moderates (9 percent) and liberals (6 percent) in citing religious convictions as having mattered 'a lot' in their voting decisions. Opinion of pastors mattered little for moderates (3 percent) and liberals (4 percent), but mattered more for conservatives (14 percent).

George Barna, a special analyst for the Barna Group's 2016 election polling, noted that the research shows that churches do have political influence on people, especially evangelicals.

"Pastors and people's religious beliefs had the most prolific levels of influence on the political choices of evangelicals," Barna said. "The influence of the two religious inputs examined was four times greater on evangelicals than it was on all other people associated with the Christian faith. Evangelicals take a lot of criticism for their blending of faith and politics, but they believe that their faith is meant to be integrated into every dimension of their life. The research shows that they are following through on that belief."

'Give the Gift of Love to Asian Foster Children in Los Angeles'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will be hosting its third annual Christmas gift drive for Asian foster children throughout the month of November.

The gifts and donations will be collected from November 1 to December 10, and the gifts will be given to the foster children at a Christmas party on December 21.

Social workers who meet with the children on a regular basis have been asking them what they would like for Christmas from Santa Claus.

Last year, some items that were included in wishlists were Legos, Barbie dolls, teddy bears, and other toys, as well as colored pencils, journals, notebooks, soccer balls, skateboards, scooters, bicycles, and other items. Some children asked for gift cards to certain stores such as Walmart, Target, and TJ Maxx, while others even included specific sizes and measurements for the items they wanted.

"For the past two years,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have extended their warm hearts to prepare gifts that the children wanted. There were some at the Christmas party who attended a Christmas party for the very first time in their lives," said KFAM executive director Connie Chung Joe.

"I hope that many Korean Americans will once again be the Santa Claus for many of these foster children who are not losing hold of their dreams in the midst of their trials."

Each donation is 50 dollars, and those who would like to contribute can do so by sending a check or giving online via credit card.

According to KFAM, 34,648 foster children were listed as living in foster homes through the Los Angele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LADCFS) in the month of September. Among those in foster homes, 683 are Asian children, and 40 are Korean children who cannot speak English.

Volunteers helped wrap gifts during a previous KFAM Christmas gift drive for foster children. (Photo courtesy of KFAM)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preme Court Agrees to Hear Transgender Bathroom Policy Case

The Supreme Court has agreed to hear the case involving a transgender teen who has filed a lawsuit against a school for the right to use the restroom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Gavin Grimm, 17, is a student at Gloucester High School in Virginia, and was allowed to use the boys' restroom at school in 2014, which Grimm did for seven weeks. However, after receiving complaints from parents, the school prohibited Grimm from using the male bathroom and instead required using single stall or female restrooms.

Earlier, Grimm was using the unisex stall, but said that it was too far and it would take about 10 minutes to cover the distance, leading to tardiness to most of Grimm's classes. The school also built three other single-stall restrooms to accommodate Grimm, but the student felt singled out by having to comply with a segregated arrangement.

Grimm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chool in 2015 with the help of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and a lower court ruled in favor of the school. But, the Fourth Circuit Court of Appeals ruled 2-1 against the school.

The Supreme Court has agreed to hear a case regarding a transgender student who is seeking the right to use the restrooms at school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Photo: Matt Wade/Flickr/CC)

The panel referred to a letter sent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o the school asking them to permit transgender students to use the bathroom in accordance with their gender identities.

"Transgender kids should not have to sue their own school boards just for the ability to use the same restrooms as everyone else," Grimm had said in a statement after Fourth Circuit announced its decision.

Judge Paul Niemeyer, had written a dissenting opinion at the court, in which he sided with the school.

"Bodily privacy is historically one of the most basic elements of human dignity and individual freedom. And forcing a person of one biological sex to be exposed to persons of the opposite biological sex profoundly offends this dignity and freedom," he said. "Somehow, all of this is lost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s service of the politically correct acceptance of gender identification as the meaning of 'sex'."

Washington D.C. City Council Votes in Favor of 'Death With Dignity Act'

The Washington D.C. city council voted 11-2 in favor of the bill that would permit terminally ill patients to request for a medically-assisted death.

The 'Death With Dignity Act' applies to people whom the doctors say have less than six months to live, and are not diagnosed with depression. The patients will have to submit multiple requests for assisted death.

But the bill can be vetoed by Mayor Muriel E Bowser (Dem) who has publicly expressed her position on the issue. If she does not veto the council decision, euthanasia will be legalized in Washington D.C.

Americans are divided on the issue of 'right to die.'

Many religious groups and organizations say that it might not be conscientious to choose to die as death is solely in the hands of God.

Supporters of the bill say that patients should have the right to opt for a peaceful death.

"To deny it [the right to die] to those who competently choose it is simply to prolong the process of death, to prolong suffering, to rob a person of autonomy, and in some cases to simply impose one's own moral or religious choice on another person," said Council Member Mary Cheh, the sponsor of the bill.

Opponents also cite other reasons for their apprehension of euthanasia. Many say that expensive insurance companies could disregard options for patients who cannot afford expensive treatments.

"Given the level of dysfunction and injustice that exists currently in our health care system -- with many people without insurance still, with the very underfunded ability of people to have choices for treatment and care -- adding this very potentially dangerous tool to the mix is of great concern to people with disabilities," Marg Hall of United in Defense of Olmstead was quoted as saying by NPR.

"We believe in life until natural death and that there is a racist component to it. It's eugenics being dressed up to look like it's the best thing since gravy," said Leona Redmond, a resident who leads a group of African Americans opposing the legislation. "They have been 'soft killing' us for couple of decades now by not providing certain people in the community with what we need to live wholesome lives. They are doing everything to send blacks away."

The residents formed a prayer circle outside the council chambers with Washington DC Archdiocese, and Redmond joined them. She has decided to raise her voice in opposition of the bill in Congress to repeal the laws.

Council Member Yvette Alexander, who voted against the legislation, said that such a matter must be decided by residents of the district.

"Given the nature of this bill, being a literal life-or-death issue, I believe this is a matter that is best left to the decision of the residents of the District of Columbia by adding it as a referendum on the ballot," Alexander was quoted as saying by Religion News Service.

Oregon was the first state in the country to pass such a law in 1997.

Hundreds of Thousands Sign Petition Calling for Release of Asia Bibi from Death Row in Pakistan

Over 540,000 people have signed a global petition to call on the government of Pakistan to release Asia Bibi who is on death row for blasphemy charges.

"Asia Bibi was falsely accused of 'blasphemy' -- speaking against the Prophet Muhammad. Now this wife and mother of five will hang for her Christian faith. She would be the first woman executed under Pakistan's Shariah blasphemy law. This is the ultimate human rights violation," states the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 petition on behalf of Bibi.

The Islamic radicals have expressed rage towards Bibi, and have stated that they will kill her if she is not given the death sentence.

However, seve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calling on Pakistan to release her and reform the blasphemy laws.

Bibi has been living in captivity for the last seven years, waiting for the verdict to be pronounced.

Human rights activists say that most of the blasphemy cases in Pakistan have no real ground and are motivated by personal vendettas. They also argue trials for blasphemy cases are not fair, and the judiciary hands out sentences under the pressure of radicalized mobs.

"Article 10-A of the Constitution of Pakistan requires that a person facing a criminal charge 'shall be entitled to a fair trial and due process.' Asia's trial was anything but fair, and the process she has experienced and is experiencing even to this very day is anything but due process," ACLJ said in a letter to Pakistan's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Jalil Abbas Jilani.

The Pakistan Supreme Court was to hear Asia Bibi's appeal in the blasphemy case on October 13th, but the trial was delayed again after one of the judges on the bench recused himself.

The judge had earlier presided over the prosecution of late Punjab Governor Salman Taseer's murder, and said that an implicit connection between that trial and that of Asia Bibi makes him unsuitable to hear the case.

The matter is now in the hands of the Chief Justice of Pakistan, who will constitute a new bench for the trial.

Over 20 House Church Christians Beaten by Police, Couple Detained for Hanging Cross in Home in China

About 20 Chinese Christians were beaten by the Public Security Bureau in Nanle County on September 25, according to China Aid.

The group of Christians were members of a house church in Henan province of central China.

"A lot of problems have been caused because they [the Public Security Bureau personnel] control, attack and persecute Christianity in Henan. I hop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pray for them," said Zhang Mingxuan, a pastor and president of the Chinese House Church Alliance.

Another couple in Henan province was imprisoned for hanging a cross in their home, which also served as a house church. A woman who visited them was also arrested.

The police raided their house church and confiscated their Bibles and other religious items. China Aid reported that this is the second time the house church was raided this year.

The pastor has been released from prison, but his wife and the female guest are still being detained by the police.

Activists sa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stepped up persecution of Christians under President Xi Jinping.

Hundreds of Christian activists and lawyers have been detained during the last two years, and over 1,200 crosses were demolished and hundreds of churches razed to the ground in a 'beatification campaign' launched by the government.

A member of the Houshi Church told Radio Free Asia that church congregations are under the government's radar and are being closely monitored.

"There have been people watching me in the past few days from my neighbourhood committee and the local police station," RFA quoted an anonymous member as saying.

About two months ago, Chinese authorities in Zhejiang imposed bans on prayers in hospitals. The rule states that hospitals will not allow visitors to pray for the sick or preach in hospitals.

In the same province, the local government in Pingyang County made it mandatory for churches to give all their tithes and income to the authorities.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맞이 특별SALE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